

# 한국 기독교 다큐멘터리의 현황과 과제

강진구(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문화/예술 3-5)

## 논문초록

이 논문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현상을 분석하여 앞으로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며 기독교문화를 전개시키고 선교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세기까지 진행되어온 극영화 중심의 기독교영화제작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대신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7~8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부흥의 원인에는 2009년 개봉되어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위낭소리>와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크게 한 몫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울러 물질문명과 경쟁사회에 찌든 현대인들이 자연과 인간의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감동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세상을 향해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향해서는 보다 성경적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제작 상영될 수 있도록 소비운동을 벌이면서 교회 안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가운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다큐멘터리가 하나의 장르화 될 때 한국영화계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다큐멘터리, 기독교영화, 문화선교, 기독교문화

## I. 서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누는 일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해왔다. 직접적인 대면과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선교의 방식 외에도 특정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선교방법이 사용되는 것도 이 ‘복음의 드러냄’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복음을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영화는 매우 주목을 받아 왔다. 영화가 일상적인 여가생활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의 극장수는 295개에 달하며, 이 극장들은 총 1,996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 24,935명 당 한 개꼴에 달한다. 영화관객수 또한 1억5천6백7십9만명에 이르러 국민 1인당 1년에 3.15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이 일년 동안 경험한 예술행사 관람 회수는 4.9회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4회는 영화관람이 차지함으로써 영화가 강력한 대중선호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외에도 캐치온이나 OCN, Home CGV, Screen과 같은 영화전문 케이블TV의 인기와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영화를 주문해 볼 수 있는 온라인사이트의 등장은 문화생활이라는 영역 안에서는 가히 영화광이 아니더라도 영화에 둘러싸여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큰 관심과 달리 지난 10년간 극장에서 상영되는 극영화의 경우 순수한 국내기독교영화 제작과 상영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할 만큼 매우 저조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에 한국기독교영화계에는 전예 없었던 새로운 영화바람이 불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바로 극장상영용으로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잇달아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영화라면 의례 <벤허>를 떠올리고 성경을 영화화한 작품이거나 기독교의 위인들을 다룬 영화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근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기독교영화라면 일 년에 고작 한 두 편 보기도 힘든 예전과 달리 기독교다큐멘터리는 2010년도에만 무려 67편이나 제작, 상영되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영화사에 없었던 왕성한 기독교다큐멘터리 제작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21세기에 나타난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제작 유행과 높은 사회적 관심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특징들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아울러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 앞에 펼쳐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하는 일은 영상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문화를 넓혀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지식을 나누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었거나 상영을 앞둔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다큐멘터리의 범위가 대단히 넓을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효과적인 만남을 이루고 작품성을 기대할 만큼의 충분한 제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장용 영화만큼 적절한 대상물이 없는 까닭이다.

## II. 한국기독교영화의 전개와 특징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그랑카페(Grand Cafe)에서 뤼미에르 형제 형제(Louis & Auguste Lumiere)가 오늘날의 형태의 영화를 만든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1897년에 세계최초의 기독교 영화로 알려진 프랑스 레아르 감독의 <수난>(La Passion)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미디어나 예술형식을 통해 신앙을 드러내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이라는 연극이 있었고, 연극 이전에는 회화나 조각 그리고 음악 등의 예술장르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이미 1634년부터 독일의 뮌헨 남서부에 자리한 오베람메르가우에서 예수의 고난주간을 맞아 매 10년 마다 행해져 내려온 <오베람메르가우 수난극(Passion Play of Oberammergau)>과 같은 형태의 기독교연극은 쉽게 영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덕분에 최초의 영화를 만드는데 쉽게 활용될 수 있었다.<sup>1)</sup>

한국의 기독교영화의 경우는 서구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최초의 기독교영화는 1948년 제작된 최인규 감독의 <죄 없는 죄인>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서 공교롭게도 주기철 목사가 활동하던 같은 시기에 경성방송국에서 만담가로 활동했고 해방 이후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서 24년간 아나운서로도 활동했던 황재경 목사가 주기철 목사 역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어떻게 연출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제대로 된 한국식의 기독교영화는 1977년도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강대진 감독의 <사랑의 원자탄>과 임원식 감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된 영화들이다.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담았고 77,103명의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은 것으로 기록되었다.<sup>3)</sup>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주기철 목사의 삶을 다시 한 번 그려내어 주목을 받았지만 극장 보다는 교회 상영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을 만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합동영화사가 제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주기철 목사의 행적 가운데 일제에 항거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그것은 곧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도로 읽혀졌다. 당시 유신정권 밑에서 영화를 검열하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국민의 저항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고, 이 영화는 우수영화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상영이 불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

1) Tatum, W. Barnes (1997, 18-21). 반즈 데이텀은 레아르 감독의 <수난> 외에도 지금의 체코 호리츠(Horitz) 마을에서 촬영된 <수난극(Passion Play)>(1897)과 <오베람메르가우 수난극(Passion Play of Oberammergau)>(1898)이 연이어 제작되어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상영되었고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최인규 감독은 일제시대와 광복직후 한국영화 초창기에 활약한 대표적인 감독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는 일제시대 끝 무렵 <사랑의 맹서>(1945)와 <가미카제의 아들들>(1945)과 같은 일제어용영화를 만들었고, 해방이후에는 <자유만세>(1946)와 <독립전야>(1948)그리고 <죄없는 죄인>등과 같이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찬양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최인규 감독이 얼마만큼의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죄없는 죄인>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순교한 목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해방이후의 영화들과 함께 일제의 친일경력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종화 (2008, 88-89)

3) 이 글에 언급된 영화개봉연도 및 박스오피스 순위, 그리고 영화관객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 수록된 한국영화연감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www.kmdb.or.kr>

<표1:극장상영용 주요 기독교영화(1977 -1999)>

상영 년도	영화제목/감독	제작년도/ 제작사	관객수(명)	출연자	장르/특징
1977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1977 남아진흥	77,103	이신재, 송승환	인물중심 드라마
1981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1977 합동영화사	?	신영균, 고은아	上同
1982	낮은데로 임하소서/ 이장호	1981 화친공사	110,564	이영호, 신성일	上同 대중상 작품상
	죽으면 살리라/ 강대진	1982 신한문예영화	25,829	윤복희, 박암	인물중심 드라마
	나는 할렐루야 아줌 마였다/김수형	1982 화풍홍업	19,282	송도영, 신영일	上同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5,607	임동진, 문오장	上同
1986	순교보/임원식	1986 라이프프로덕션	?	신현섭	다큐드라마 극장상영미확인
1989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기원	1989 프로덕션두레	35,962	임동진, 김자옥	인물중심 드라마
1991	예수 천당/홍의봉	1991 유영필름	11,305	이영후	上同
1994	무거운 새/곽정환	은아필름	34,799	송채환, 손창민	드라마
1995	빛은 내 가슴에/ 이기원	1995 아리랑필름	72,201	이세창, 김선희	인물중심 드라마
1996	왕후 에스더/김청기	1996 동보홍행	561		애니메이션
1997	예수/정수용	1997 한신코퍼레이션	21,051		애니메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정권이 바뀐 뒤 1981년 명보극장에서 개봉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상영 직전에는 객석 가운데 목회자들이 일어나 기도를 했는가 하면, 영화상영을 기다리는 복도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부흥회를 연상시켰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한국영화연감의 통계에서 이 영화의 흥행실적이 누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제작년도(1977)와 개봉연도(1981)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영화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1982년은 한국기독교영화사에 매우 중요한 해였다. 전체 103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었는데 이 가운데 4편이 기독교영화였다. 흥행기록도 남달랐다.

2위에 오른 이장호 감독의 <낮은데로 임하소서>(1981)는 110,564명을 동원하여 흥행 1위였던 <애마부인>의 315,738명에 뒤를 이었다. 시각장애인인 안요한 목사의 일대기를 담은 드라마로 이장호 감독

의 대중적 감각과 예술적 표현이 널리 인정받으면서 그 해 대중상 작품상을 수상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강대진 감독의 <죽으면 살리라>(1982)가 25,829명으로 35위에 올랐는가 하면, 최자실 목사의 자서전을 영화화 한 김수형 감독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가 19,281명으로 52위, 김성호 감독의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5,067명으로 91위를 기록했다.

1980년대 한국영화는 TV의 컬러 방송이 시작되고 한국영화가 대형화되던 시기였다. 컬러TV의 출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영화계였고, 이에 대한 영화계의 대안은 <애마부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에로영화와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처럼 새로운 감각의 젊은이들 취향의 멜로드라마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 속에서 기독교영화는 잠시 걸음을 멈춰야만 했던 시기였다.

이기원 감독이 김진홍 목사의 삶을 조명한 <새벽을 깨우리로다>(1989)는 잠잠했던 한국기독교영화의 침묵을 깬 작품이었다. 1990년 개봉작 103편 가운데 35,962명을 동원하여 16위에 올라 1990년대의 기독교영화 제작의 불씨를 지피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홍의봉 감독이 최권능 목사의 열정적인 신앙활동을 그린 <예수천당>은 1970년대부터 계속된 전기적 기독교영화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 작품이었다. 11,305명의 관객수를 기록해서 117편의 개봉영화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영화배우 출신의 고은아 권사가 대표로 있는 은아필름에서 제작한곽정환 감독의 <무거운 새>(1994)는 한국 기독교영화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로서 해외로케이션 촬영과 송채환, 손창민 등의 인기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만든 대형영화로 관심을 끌었다. 영화 시작 전 극동방송 사장이었던 김장환 목사의 기도가 극장 내 스피커를 통해 나올 만큼 분위기는 신앙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높은 기대와 달리 흥행성적은 34,799명을 동원하여 그 해 개봉한 70편의 영화 가운데 15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 저조한 성적은 계속해서 기독교영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은아필름에도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기원 감독의 <빛은 내 가슴에>(1995)는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유학길에 올라 박사학위를 받고 미 행정부의 고위직에도 올랐던 강영우 박사의 신앙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72,201명의 관객을 끌어들여 그 해 개봉된 58개 영화 가운데 12위에 올랐다. 기독교영화가 대중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기독교 드라마가 어떻게든 변하지 않고서는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영화에는 드라마 장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도 여러 작품이 제작된 바 있다. <로봇 태권 브이>로 널리 알려진 김청기 감독은 1983년 장편 애니메이션 <다윗과 골리앗>을 제작한데 이어서 1996년에는 <왕후 에스더>를 극장에 올리기도 했다. 과거 아동용 애니메이션은 극장 보다는 시민회관과 같은 영화전용 상영관이 아닌 객석을 갖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했는지는 통계에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왕후 에스더>의 경우 561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와 있다. 1997년 정수용 감독의 애니메이션 <예수>가 개봉되어 21,051명의 관객을 모은 것은 그나마 기독교애니메이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선교를 가장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항상 시대적인 문화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선교전략을 모색해왔고, 영상문화의 시대를 맞으면서 ‘영화를 통한 선교’라는 방법은 당연히 행될 수 있는 가치를 지녔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 영화들은 독

창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제작되기 보다는 익히 알려진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영화의 스타일 또한 인물중심의 편향을 보이고 있어서 기독교 위인전을 읽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것은 종교적 엄숙성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한 일일지 몰라도 대중성을 약화시켜서 기독교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관객을 모으는데도 실패하고 마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영화라는 한계점도 뛰어넘지 못했고, 선교영화라는 인식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 III. 새로운 기독교영화의 출현

#### 1. 기독교 극영화의 쇠퇴

21세기에 접어들어 이후 한국 영화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6년 국내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뜻하는 스크린쿼터제가 기존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드는 바람에 많은 국내영화인들이 한국영화의 몰락을 우려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2006년 이후 매년 한국영화의 제작 및 상영편수는 100편을 훌쩍 넘어섰고, 한국영화점유율 또한 2006년 63.8%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는가하면, 2008년도의 경우만 42.13%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을 뿐 매년 50% 내외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선전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한 해 1인당 관람회수 또한 2002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2편이 넘는 2.2편을 기록하여 총 영화관객 1억명 시대를 돌파했다. 2009년도 한 해 총관람객수는 1억5천6백7십9만명에 달함으로써 한국영화시장의 큰 성장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영화의 경우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2> 2000-2009년 년도 별 기독교영화<sup>4)</sup>

년도	한국영화 제작편수	한국영화 상영편수	기독교영화 상영편수 및 영화제목과 감독
2009	138	118	1 <소명>(신현원)
2008	113	108	(1) <크로싱>(김태균)
2007	124	112	(1) <포도나무를 베어라>(민병훈)
2006	110	112	0
2005	87	83	1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김수형) 재개봉
2004	82	74	(1) <도마 안중근>(서세원)
2003	80	65	0
2002	78	82	1 <미션 바라바>(사이토 고이치) 한일합작영화
2001	65	52	0
2000	59	62	0

4) <표2>에 나타난 기독교영화 상영편수의 괄호는 해석에 따라서 기독교영화가 아닌 일반영화나 가톨릭영화로 분류될 수 있다. <도마 안중근>은 개봉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관람할 만큼 가톨릭 교인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감독이 가톨릭 신자이면서 영화 또한 가톨릭 수도원과 신학교를 오가며 성과 속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표2>를 보면 2000년에서 2009년 까지 10년간 한국에서 제작한 기독교영화는 매우 일천한 형편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도마 안중근>과 <포도나무를 베어라>가 가톨릭 성격의 영화임을 감안할 때 개신교의 특성을 보여준 영화의 숫자는 줄어든다. 거기다 <미션 바라바>는 주연 여배우를 포함한 일부의 배우들이 한국인일 뿐 감독과 제작진 모두 일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완벽한 한국기독교영화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김태균 감독의 <크로싱>은 탈북자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이 매우 의미있게 묘사되고 있지만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탈북 아버지의 부성애가 깊이 녹아 있는 점은 이 영화를 일반영화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을 만큼 기독교영화의 범주에 집어넣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작품이다. 김수형 감독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역시 순수 창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오직 <소명> 한 작품만이 10년간의 세월을 대표할 수 있는 기독교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이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란 점은 한국기독교영화계가 일정한 규모와 작품성을 갖춘 극영화를 만드는데 대단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전혀 기독교영화가 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젊은 영화제작자인 권순도 감독은 2007년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을 다룬 <그의 선택(His Choice)>을 제작하여 시사회도 가진바 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홍의봉 감독 역시 <다시는 나누이지 않으리라>와 <샤론의 꽃>을 제작하고 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 일부의 관객들과 조우하기도 했지만 배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장에 걸리는 일반상영에 이르지 못했다.

## 2.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과 확산

기독교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한 주인공은 다큐멘터리였다.

김우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맨발 천사 최춘선-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는 비록 극장상영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교회에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처음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식시킨 작품이었다. 1995년부터 7년간의 적지 않은 세월 속에 카메라에 우연히 잡힌 최춘선 할아버지의 신앙과 사회봉사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 영화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젊은 세대에 게 조차 자신의 신앙과 국가관을 돌아보게 만들만큼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다. 처음부터 상품화하기 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린 덕분에 2005년 책과 더불어 공식적인 DVD가 출시되기 전까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집회와 예배를 통해 이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었다.

<팔복>의 첫 작품이 완성 된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획의 시대를 연 것이다. 기독교 극영화가 흥행에 참패를 면치 못한 현실에서 기획이란 문화시대에서의 생존을 뜻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단순히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만큼 흥행이 안 돼도 그만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 한 소재를 찾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함은 물론, 아울러 그것이 관객에게 적절히 다가갈 수 있도록 배급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3>2009-2010년 기독교 다큐멘터리영화5)

제작년도	영화 제목 / 감독	제작사	특기사항
2009	소명 / 신현원		대중흥행에 성공한 최초의 기독교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2010	소명2-모겐족의 월드컵 / 신현원	신현원프로덕션	김성주 내레이션
	회복 / 김종철	스토리셋	제5회 모나코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잊혀진 가방 / 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권오중, 이현우 출연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 이홍석, 박성준	N STAR N PICTURES	유지태 내레이션
	용서 / 김종철	스토리셋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선교 현장
	고로고초 하쿠나 마타타-지라니 이야기 / 이창규		제8회서울기독교영화제 개막작
	울지마 톤즈 / 구수환	KBS	이금희 내레이션

기독교영화의 변화를 주도한 다큐멘터리는 2009년 개봉되어 16만 관객동원에 성공한 신현원 감독의 <소명>이었다. 남미 아마존의 바나와 원시부족을 섬기는 강명관 선교사 부부의 선교현장을 담아 관객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제공했다.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자신의 언어도 갖고 있지 않은 아마존 원시부족의 한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Calling)’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는 정공법을 사용한 셈이었다. 즉 오지 선교사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화라 할 수 있다.

2010년 1월에 개봉한 김종철 감독의 <회복> 역시 15만 관객을 거뜬히 넘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다. 우리의 생각 밖에 있었던 메시아닉쥬(Messianic Jew,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현장은 가히 충격이었다.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증거하는 자신의 동포들을 향해 서슴없이 폭탄선물을 던지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유대인에 대한 짝사랑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거대한 아랍을 상대하는 유대인들은 남북분단과 가난하게 살아왔던 한국인들에게는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 <회복>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유대인을 향한 짝사랑을 거두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진정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철 감독의 <잊혀진 가방>은 2010년 무더운 여름의 짜증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기획의 신선함이 돋보였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였다. 신앙의 연륜이 쌓인 텔런트 권오중과 초보신자인 가수 이현우가 함께 영국의 선교단체 창고에 보관중인 선교사의 가방에 얽힌 이야기를 쫓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봉 전부터 매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다.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이현우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5) 이창규 감독의 <고로고초 하쿠나 마타타-지라니 이야기>는 2010년 개봉일이 미확정된 상태이다.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미스터리 추적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나 평범하게 아프리카 사역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확실히 새로운 구성을 시도했다는 점은 높이 살 만 했다.

2010년 10월 7일 개봉한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시 빈민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예수 안에서 삶을 나누고 있는 임홍세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마약과 범죄 AIDS가 들끓는 도시 빈민가의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는 소망의 세상을 여는 문과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휴먼다큐에서 선교다큐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면,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는 선교사역이란 분명한 가치를 일반화시켜서 휴먼다큐처럼 만든 작품으로 비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비교적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구수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는 수단의 가난한 한 사람들을 돌보다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죽음을 다룬 감동의 영화다. 영화는 시종일관 '왜 그가 그 먼곳까지 가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신부 어머니의 말대로 한국에도 의술을 통해 돌볼 사람이 많은데 아프리카까지 가야했을까? 또한 사회봉사에 인생의 의미를 둔 의사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굳이 신부가 될 필요가 있었는가를 묻고 있다. 이신부는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눅9:48)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그리고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영화는 두 가지 기억을 따라 스크린 위에 영상을 쏟아낸다. 하나는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가 저술한 자전적 사역이야기를 담은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에 언급된 이 신부의 삶을 추적하고, 다른 하나는 이신부의 죽음 이후의 지인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그 가운데서도 이신부가 사랑했던 수단 현지인들의 기억은 과거에 묻힌 추억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임을 카메라는 숨김없이 담아낸다.

우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원주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신부가 생전에 가르쳤던, 수단에 하나 밖에 없다는 톤즈의 학생 브라스밴드가 장례행렬에 나설 때 음악은 사랑의 기억을 일깨운다.

이 영화는 17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하여 <위낭 소리> 이후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운 다큐멘터리로 기록되고 있다. 종교다큐멘터리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낸 것이다.

#### IV.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의 등장 원인

극영화가 전부인줄 알았던 한국의 극장가에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 이충렬 감독의 <위낭소리>가 전국관객 292만 명을 동원하여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데 이어서, 이제는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영화화하여 극장에서 개봉하는 일도 늘어났다. <북극의 눈물>의 경우 이미 2008년 MBC TV의 '지구의 눈물' 시리즈의 하나로 방영한 일이 있었다. 당시 지구온난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얼음이 녹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누이트족과 북극곰들의 위협스러운 생태를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2009년 10월 전국 43개의 개봉관을 시작으로 극장상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것은 2008년 8월 KBS의 <차마고도>가 극장에서 개봉된 이후 극장에

서 상영된 두 번째 TV다큐멘터리영화였다. 2010년 3월에도 '지구의 눈물' 시리즈 제2탄인 <아마존의 눈물>이 개봉했고, 2010년 연말에 EBS는 2008년 인기를 모은 <한반도의 공룡>을 3D로 재편집하여 다시 한번 극장을 통해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TV다큐멘터리의 극장용 영화화 현상은 이미 TV를 통해 높은 시청률을 보인 작품들을 선택한 만큼 흥행부진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또한 TV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한 내용을 곁들여서 관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TV다큐멘터리물들은 일반 영화 못지않게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촬영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물과 풍광을 보여주며,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위적인 느낌 없이 인간과 자연의 현실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 보인 점도 TV용을 극장용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TV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물질문명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필요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이 다큐멘터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것은 대략 두 가지다. 하나는 기계문명을 벗어난 자연의 원시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지구의 눈물> 시리즈와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청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고, <동물의 왕국>과 같은 TV프로그램은 물론 내셔널 지오그라피로 대변되는 친환경적이며 자연의 신비성을 드러내는 영상콘텐츠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케이블 채널을 운영할 만큼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시청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무한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대개 휴먼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란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인생의 참 기쁨을 획득하는 인물들의 삶이다. 이것은 너무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 매몰되어진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독교다큐멘터리는 바로 자연의 원시성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된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선교적 자세로 접근하는 지점에서 개화한다. 영화 <소명>은 아마존의 바나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돕는 선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의 얘기다. 관객들이 이 영화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의 원시성이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인간이나 자연 모두 원시성을 간직하고 있다. 천마리의 모기가 동시에 문 것 같은 고통을 주는 독충들의 습격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쥐나 거북이 심지어는 원숭이도 잡아먹어야 하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지만 진정한 현실이다. 그러나 원주민들과 똑 같이 사는 가운데 갖가지 고난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의 삶은 철저한 이웃사랑의 현장이며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자 교회는 물론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장면이 다름 아니다.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는 비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빈민가의 아이들은 또 다른 의미의 원시성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원시성이란 제대로 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순수하지만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소외되거나 소멸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은 극히 제한된 반면에 에이즈와 살인폭력 그리고 처절한 가난은 독충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원주민처럼 항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들과 다름없다. 이들에게 축구를 지도하며 생존과 성장의 소망을 키워

주는 일을 하는 축구선교사의 이야기는 기독교 휴먼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현대인들은 화려하게 각색된 극영화에 대해 여전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울러 마음 한 구석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채워줄 다큐멘터리의 진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진실과 감동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때 맞춰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 V.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

### 1. 감독의 소명 의식의 발현

다큐멘터리는 극영화에 비해서 제작자나 감독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보다 분명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감독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의지가 깊이 투영되는 반면에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화가 전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흔히 기독교영화라고 알려진 극영화의 감독 가운데는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벤허(1959)>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가 그렇고 <불의 진차>(1981)를 연출한 휴 허드슨(Hugh Hudson)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왕중왕>(1927)과 <삼손과 데릴라>(1949) 등 대형 성서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세실 드 밀(Cecil Blount De Mille)은 기독교인이었고 영화촬영장에서 기도회 권장하는 등의 일화도 남겼지만 후대의 비평가들은 그는 쇼맨십이 강한 상업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저예산의 독립영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흥행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촬영 현실을 감안할 때 남다른 신앙의 의지나 소명의식을 가지 않고서는 제작에 임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sup>6)</sup>

이것은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는 감독에게도 매우 특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다큐멘터리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고 기독교인 관객들에게 신앙적 감동을 선사하려는 의도를 지녔을 것이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감독들이 가장 많이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까지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회복>의 김종철 감독은 그가 영화를 만든 직 후 쓴 책 <회복-영화에 못다한 감동실화>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1993년도의 일이었다. 그 후로 영화를 만들기까지 약 30여 차례 이스라엘을 드나들면서 꾸준히 자료 수집을 해 온 것과 충무로의 베테랑급 스태프들이 촬영에 동참을 해 주어서 훌륭하게 작업을 마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알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6) Tatum, W. Barnes (1997, 85-89). 반즈 테이텀은 세실 드 밀 감독이 ‘쇼맨십과 스펙터클의 대명사’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가 성서영화를 제작할 때 신학자들의 조언을 받을 만큼 성서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 <왕중왕> 촬영 첫 날 영화촬영장에서 행한 기도회에는 기독교와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는 물론 이슬람교도와 불교도까지 참석했다. 이것이 그의 특별한 신앙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상업주의적인 감독이 종교영화를 만들 때 보여줄 수 있는 쇼맨십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역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하기 원하셨던 것 같다.(중략)

이스라엘에서 촬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들을 현지에서 만나게 해주셨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영화 <회복>이 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총 진행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총감독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sup>7)</sup>

김종철 감독이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시킨 경우라면, 신현원 감독은 <소명>을 만들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2009년 4월 2일에 방송된 CGNTV의 ‘박나림의 하늘빛 향기’에 출연하여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무렵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한 선교사다큐멘터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한 바 있다. 선교사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의받았을 당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방송인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직업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명>을 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욱 더 확실히 자신을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즉 13년간 아프리카의 밀림과 같은 오지를 수십차례 드나들었던 경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유아나 동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노하우가 지금의 선교사다큐멘터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기독교다큐멘터를 향한 감독의 소명의식을 언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한가지는 감독들의 출신 배경이 바로 TV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다큐멘터리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팔복 시리즈>를 제작한 김우현 감독은 KBS의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서 다년간 활약했고 2002년에는 ‘친구와 하모니카’편으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소명1,2>를 제작한 신현원 감독은 13년 간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TV동물농장’ 등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연출자로서의 걸어온 경험이 있다. <회복>과 <용서>의 김종철 감독은 방송작가로 25년간 활동했던 경력을 통해 영상물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사람이다. TV다큐멘터를 제작하면서 얻은 지식과 기술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스크린을 응시하는 관객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제작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를 향한 의미있는 작업임을 뜻하는 일이며, 앞으로 기독교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7) 김종철(2010, 4-5) 저자는 17년 전 이스라엘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 현실을 한국에 알리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아울러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영화제작을 단순한 개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 여기고 있음을 이 책 구석구석에서 밝히고 있다.

8) ‘박나림의 하늘빛 향기’ 199회. 2009년 4월 2일 방송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신현원 감독>편에서 신감독은 자신이 선교사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든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술회하고 있으며, 이 영화를 보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type=vod&player=8&bit=high&id=52400](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type=vod&player=8&bit=high&id=52400)

## 2. 해외의 선교라는 주제의 명확성

2009년부터 제작된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선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명확한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선교의 공간을 해외에 두고 사역현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인간극장>이나 <한민족 레포트>와 같은 TV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들과 유사하다.

이국의 낯선 풍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나 현지인들의 어려움이 제시된다. 이 어려움은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돕기 위한 인물(선교사)이 등장하며, 아울러 선교사가 처한 당면 과제가 펼쳐진다. 그러나 투철한 신앙과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주민들을 이끌어가거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이러한 구성은 만일 선교의 의미와 목적이 제대로 카메라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사회봉사정신이 뛰어난 훌륭한 한국인의 인간애 정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인 관객에게는 신앙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휴먼다큐멘터리 영화와는 분명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회복>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메시아니즘(Messianic Jew)들이 박해받는 실상을 여지없이 카메라에 담았다.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유대인 전도자 가정을 향한 폭탄테러로부터 주일 예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훼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이 화면에 가득 넘친다. 단지 예수님처럼 같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감독의 소박한 의도는 사회주의국가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박해의 현장을 비춰야만 했다.

관객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신앙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극장을 나서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영화관 안에서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신앙을 대입시켜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다큐멘터리가 기독교인들을 주 관람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의 개념과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바른 해석은 아니다. 선교지상명령으로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을 조금 더 세밀히 분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선교명령의 핵심 구절은 19절과 20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여기서 나타난 선교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충성을 바치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보다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명령안에서 선교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것을 ‘확산( to expand)’명령이라 한다면, 뒤의 것은 계승(to inherit)’ 명령이라 할 수 있다.<sup>9)</sup>

기독교영화에 대한 선교 혹은 전도의 가치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영화관에서 기독교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영화가 제공하는 성경적 메시지나 거룩한 장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는 일이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그 누구도 제한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2004)를 보고 절도범이 회개했다는 외신보도처럼 영화의 강력한 이미지나 메시지의 작용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일은 특수한 사례에 집착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영화의 작용을 통해서 기독교다큐멘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선교의 역량을 검토하는 일이다. 선교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의 인지적 변화다. 즉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다. 인지적 변화는 영화가 교육적이며 교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처 알지 못했거나 어렵פות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영화로부터 얻은 지식에 공감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다. <소명>을 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나와 부족과 같은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직접 선교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의 가치를 깨달아서 선교와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보다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영화를 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는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모든 행동의 시작은 인지적 행위로부터 비롯된다는 고전적인 세계관의 법칙에 따라서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선교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과장된 얘기는 아닌 것이다.

## VI.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의 의미

사실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의 본질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화법을 통해 전한다는 점은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전통적인 화법이다. 이것은 기독교영화임을 숨기지 않고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독교 메시지가 분명할수록 한국극장가에서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난 과거의 형편이었다. 실제로 <소명>이나 <회복>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다큐멘터리들은 모두 처음에는 영화상영을 허가하는 극장을 찾지 못해 겨우 단관개봉, 즉 전국에서 오직 한군데 극장의 한 개의 스

9) 남정우(2010, 38) 남정우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전자는 미전도종족 선교 명령이고, 후자는 미전도세대 선교명령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영화를 즐겨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영화가 선교적 사명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새롭게 각인시킨다고 할 수 있다.

크린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고 우리시대의 복음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지속되면서 관객의 숫자를 늘려나가게 된 것이다.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다큐멘터리 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사실에 기초한 감동을 전하려는 다큐멘터리의 본래적 속성이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히 번진 반기독교적 사회분위기 쇠신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이야기나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마22:37-42) 삶을 실제적으로 거짓 없이 관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및 민족지적 영화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인 빌 니콜스(Bill Nichols)는 다큐멘터리의 강점을 신뢰성에서 찾고 있다.

필름, 비디오, 디지털 이미지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데에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본 것과 그것의 재현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Nichols, 17)

개인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TV와 같은 거대 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의 경우 타 매체에 비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기가 쉽다. 기독교다큐멘터리에 대한 믿음의 형성에는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사실(fact)을 진실(truth)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화관 밖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믿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의 기독교 또한 영화의 내용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의식의 변화와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처럼 보이는’ 극영화의 영향력을 ‘사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복돋아주기 위해 연출된 드라마가 아니라 날 생선처럼 펄펄 뛰는 살아있는 현장성을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의 형식은 주제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함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이며 시사적인 주제일수록 비기독교인의 관심은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작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목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다큐멘터리가 가진 신뢰성이 유독 큰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한국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반기독교적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09년 9월 조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지수는 5점 만점에 2.82점에 불과했다. 이는 대학 학점으로 치자면 C0 내지 C+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그래도 이 점수는 2008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2.55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가톨릭은 기독교 보다 호감도가 앞서고 있고 불교에 비해서는 2008년 조사 당시에는 낮았으나 2009년 중

교별 호감도 조사에서는 불교 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 신문인 ‘기독교보’는 2008년 11월 25일자 신문에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의 원인으로 목회자의 세금 문제, 담임목사직 세습, 교회 재정 투명성 문제, 목회자의 사생활 등의 현실문제를 꼽을 수 있지만, 각종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일부교회나 교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안티기독교세력과 연합하여 확산되는 바람에 일반화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운용능력에 재고가 필요한 것 만큼은 분명하다.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영상미디어 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러한 미디어 사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기독교다큐멘터리는 교회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전문적인 영화제작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 또한 기독교다큐멘터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카메라와 편집장비 및 영상장비 등은 과거 소수의 미디어관련 조직이나 전문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기술로 변화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예배와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10년 10월에 열린 제8회 서울기독교영화제에는 이러한 개교회가 제작한 영상물을 모아서 상영하며 또한 상을 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출품된 6편의 작품 가운데 극영화스타일은 한 편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5편은 모두 다큐멘터리 형식에 부합하는 영상물이었다. 불과 5분짜리에 불과했지만 생생한 교회의 사역을 담아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교회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독교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제작에서 상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가 유념해야할 점은 기독교다큐멘터리의 제작과 그 혜택은 교회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다.

셋째, 기독교다큐멘터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하여 성경적 삶을 살도록 촉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극장상영에 성공한 기독교다큐멘터리들은 한결 같이 기독교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선교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며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다큐멘터리가 사회문제 혹은 교회문제를 드러내는 일에도 나름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의 진정성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유익한 면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인이 훌륭한 삶을 촬영하여 다큐멘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큐멘터리의 고유의 특성을 살리려면 기독교인의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삶이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

이것은 영화와 사회와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영화가 사회의 거울과 같다’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는 과장이나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평면거울에 해당 할 수 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관객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독교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영화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할 때 기독교다큐멘터리를 통해 사람들은 보다 기독교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적 신앙의 삶과 기독교다큐멘터리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다.

## VII. 결론-기독교다큐멘터리의 과제와 대안

기독교다큐멘터리의 부흥은 아울러 우리가 중요한 과제를 떠안고 있음을 뜻한다.

첫째는 영상을 통한 복음증거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 즉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소비하는 일이다.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경제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즉 소비가 되는 곳에 생산이 있기 마련이다.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기독교인들이 몰리면 극장주들은 자발적으로 이 영화들을 수용할 것이다. 극장은 많은 관객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일차적 관심이 있음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복음전파라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신앙을 앞세우기 보다는 극장이 추구하는 경제논리를 염두해 두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 극장에 달려가는 수고와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변화를 겪는 조짐을 우리는 최근 할리우드의 영화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매우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다룬 영화로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할리우드의 제작자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바람에 멜 깁슨이 자신의 재산을 쏟아 부어야했고 영화가 완성된 이후로도 배급자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그러나 막상 개봉되었을 때 세계 기독교인의 열화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고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무려 6천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결과를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은 일회성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며 이들의 소비행태가 궁극적으로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소비하는 기독교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 가운데 하나인 20세기 폭스사는 대중적인 기독교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영화사인 '폭스 페이스(Fox Faith)'사를 세우기도 했다. 2006년 가을 미국에서는 에스더 여왕의 이야기를 다룬 <왕과의 하룻밤(One Night With The King)>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해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 과정을 그린 영화 <네이티비티 스토리(The Nativity Story)>가 개봉한 것도(국민일보 2006. 11월 15일자) 기독교인 소비자를 생각한 할리우드 제작사들의 변화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기독교다큐멘터리의 부흥과 연관해서 한국영화계를 변혁시키려는 기독교 영화 전문가들의 노력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 영역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좋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회가 도와서 그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나라의 문화를 일구도록 복돋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 관심이나 유행으로서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자신이 속한 작은 범위 안에서 기독교 문화 혹은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문화를 펼칠 수 있을 뿐이다.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한 개인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일반 사회에서의 문화변혁은 그리고 이를 감당하는 기독교영화제작을 포함한 문화사역이란 우리 사회에서 문화를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고 시스템 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이며 또한 조직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벤허>만이 기독교영화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다. 영화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벤허>같은 영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벤허>같은 영화는 백년에 한 번 나올까 마올까 한 불후의 명작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벤허> 때문에 다른 기독교영화들이 주눅이 들거나 아예 제작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벤허>는 지나간 과거의 자랑으로 놔두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독교영화를 말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새로운 기독교 영화의 중심에 다큐멘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만하다.

지난 제6회 서울기독교영화제에서는 창조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적설계론’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단 프랭코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추방: 허용되지 않은 지성>은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적설계론을 연구하다가 쫓겨난 과학자들의 인터뷰와 또한 이들을 쫓아낸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 과연 오늘날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놀라운 것은 진화론이 일으키는 우생학적인 판단이 히틀러가 열등하다고 믿은 유대인이나 짐시들 심지어 장애인들 까지도 가스실에서 죽게 만든 원인이라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사실여부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만들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미국 개봉당시 박스오피스 10위에 오를 만큼 대중적 관심도 높았다는 점이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당연하다고 여긴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영화들을 제작하고 경험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영화제가 영화를 통해 참다운 진리와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려는 설립 취지에 걸 맞는 것이다. 역지로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통해 설득해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문화사역을 문화를 통한 복음의 효과적 전달이라는 전통적인 이해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변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훌륭한 기독교 문화 소비자를 세상에 활동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적 흐름을 간파하는 안목을 키우는 일이며, 구체적 문화소비 행동을 유발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인 동시에,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문화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소비자들의 존재를 문화생산자들에게 인식시켜서 성서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들이 사회에 나타날수 있도록 교회와 일반사회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현 책임편집 (2006). 『한국영화사-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수남 (2005). 『한국독립영화』, 살림지식총서 165. 서울: 살림출판사.
- 김종철 (2010). 『회복-영화에 못다한 감동실화』. 서울: 이스라엘 사역 출판(IMP).
- 남정우 (2010).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웨키나출판사.
- 문화선교연구원 엮음 (2003).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한철, 강진구 (2002). 『감성세대의 영화읽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윤영훈 엮음 (2010). 『문화시대의 창의적 그리스도인』.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 정종화 (2008). 『한국영화사-한 권으로 읽는 영화 100년』.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 최양목 (2004). 『한국 다큐멘터리 비평』. 서울: 나남출판.
- Alan Rosenthal (1996). *Writing,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s and Videos*. 안정임 역(2002) 『다큐멘터리 제작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ill Nichols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ies*. 이선화 역(2005) 『다큐멘터리입문』. 파주: 한울.
- Jacobs, Lewis. (1971), *The Documentary Tradition-From Nanook to Woodstock*, New York: Hopkinson and Blake.
- Jowett, Garth & Linton, James (1989). *Movies as Mass Communication*, 김훈순 역(1994) 『영화 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출판사.
- Ringgold, Gene & Bodeen, Dewitt (1969), *The Films of Cecil B. DeMille*, Secaucus: Citadel Press.
- Tatum, W. Barnes (1997). *Jesus at the Movie-a guide to the first hundred year*, 승현민 역(2004) 『예수영화 100년』. 서울: 백림출판사.